

2017년 국회사무처 9급 국어 기출문제 해설 (4)

이유진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ㄱ. 최근에는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창의성, 예술성 등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엔 전세계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왼쪽은 ‘그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는가 하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도 있었다. 영어로 왼손잡이를 뜻하는 ‘left-handed’에는 ‘서투른, 신분에 맞지 않는’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으며, 프랑스어로 왼쪽을 의미하는 ‘gauche’에도 ‘비뚤어진, 어색한’이라는 뜻이, 독일어 ‘link’ 역시 ‘의심스러운, 열등한’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단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인식에 까지 영향을 끼쳐 왼손을 쓰는 아나는 때려가면서까지 고치게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슬로건은 독특하다. 전세계의 왼손잡이들에게 모든 것을 왼손으로 다루기 위해서 ‘개인공간을 왼손잡이만의 공간으로 만들라’고 말한다. 오른손잡이인 친구나 동료, 가족들 속에서 왼손잡이인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왼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불편함 속에 고통 받아 왔다는 의미이다.

ㄷ.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나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와 같은 속설로 꾸준히 변해 왔지만, 아직 왼손잡이들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점들이 많다. 가위, 카메라 셔터, 컴퓨터 마우스, 자동차 기어, 지하철 개찰구 등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건 대부분이 여전히 오른손잡이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ㄹ. 왼손잡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아는가? 매년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24년째를 맞은, 제법 오래된 기념일인 셈이다. 왼손잡이의 날은 1992년부터 세계 왼손잡이들이 의기투합해 왼손잡이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리기 위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 ① ㄱ - ㄷ - ㄴ - ㄹ
- ② ㄷ - ㄱ - ㄴ - ㄹ
- ③ ㄷ - ㄹ - ㄴ - ㄱ
- ④ ㄹ - ㄱ - ㄴ - ㄷ
- ⑤ ㄹ - ㄴ - ㄱ - ㄷ

[정답] ⑤

[출제영역] 독해 - 비문학 - 배열

[해설]

ㄱ, ㄷ, ㄹ 중 글의 시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ㄹ이다. 왼손잡이의 날이라는 화제를 제시한 이후에, 왼손잡이나 왼손잡이의 날에 대한 설명이 전개되어야 한다. ㄹ 다음으로는 ㄱ, ㄴ 중 ㄴ이 이어져야 한다. ㄴ이 왼손잡이의 날을 이어받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불편함에 대해 설명하는 ㄱ과 아직도 왼손잡이에게 불편한 점들이 많

다는 ㄷ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17. 다음 글의 ㉠~㉣에 들어갈 접속부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하여 가능한 한 많은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사람들이 기울여 온 노력은 지구촌에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지상과제 중 하나이다. (㉠)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시대에 어떻게 먹을거리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 21세기는 먹을거리에 관한 한 '풍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풍요의 시대가 '약속된 하느님의 뜻'인 것 같지 않다. 일부에서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생산된 콩이나 돼지고기를 먹은 우리가 과연 온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 | | | |
|-------|-----|------|
| ㉠ | ㉡ | ㉢ |
| ① 그래서 | 그러나 | 그렇지만 |
| ② 그런데 | 그리고 | 심지어 |
| ③ 그러나 | 심지어 | 그리고 |
| ④ 심지어 | 그래서 | 하지만 |
| ⑤ 하지만 | 그래서 | 그러나 |

[정답] ④

[출제영역] 독해 - 비문학 - 접속 부사

[해설]

첫 번째 문장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공장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는 내용이다. ㉠이 들어간 문장은 우주시대의 식량 해결에 관심이 커졌다는 내용이다. 식량에 대한 관심이 강화됨을 강조하기 위한 서술이므로 접속부사 '심지어'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21세기에 식량이 풍족할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내용이다. 식량에 대한 관심과 개발 노력이 많다는 앞서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이루므로 ㉡에는 '그래서'가 들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들어간 문장은 앞 문장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에는 '하지만'이 적절하다.

1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국어의 어법상 옳은 것은?

- ① 우리 할머니는 항상 옛스러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다니신다.
- ②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연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구정만 췌다고 하더라.
- ③ 학교까지 얼만큼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 ④ 바이올린 신동의 연주가 끝나자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콘서트홀 안을 가득 메웠다.
- ⑤ 여기가 우리의 흙구장이라는 잇점을 감안하면 현재 랭킹에서 좀 밀리지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듯하다.

[정답] ②

[출제영역]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해설]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쇠다’의 어간 ‘쇠-’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된 ‘쇠었다’는 준말 형태인 ‘썼다’로 적을 수 있다. 또한 따옴표 없이 간접 인용된 문장이므로 ‘썼다라고’로 적지 않고 ‘썼다고’로 적는 것 또한 어법상 옳다.

[오답해설]

- ① ‘-스럽다’는 명사 뒤에 붙어 쓰이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므로 관형사 ‘옛’이 아닌 명사 ‘예’ 뒤에 붙어 형용사 ‘예스럽다’로 파생해야 한다. ‘예스럽다’는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 ③ ‘얼마만큼’이 줄어든 말은 ‘얼마큼’이다. 이를 ‘얼만큼’으로 적는 것은 틀린 표기이다.
- ④ ‘우레’가 표준어이다. 예전에는 ‘우뢰(雨雷)’로 쓰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말 ‘우레’를 한자어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레’를 표준어로 삼고 잘못 써 온 ‘우뢰’는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우레’와 같은 의미인 ‘천둥’도 표준어이다.
- ⑤ ‘이점’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일어로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운 점’을 의미하는 명사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고 ‘이점(利點)’으로 적는다.

19.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저는 (㉠)을 좋아합니다. (㉡)도 좋아하지만 (㉢)을 더 좋아합니다. (㉣)이 포근하고 은근한 누님 같다면 (㉠)은 다정한 형님 같습니다. (㉡)빛이 인자한 어머니의 빛이라면 (㉢)빛은 웬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됩니다. (㉣)빛은 마냥 따스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 (㉠)빛은 따스하지만 다소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 차가움이 들뜨기 쉬운 마음을 들뜨지 않게 하고, 때로는 사물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인의 빛이 있다면 (㉡)빛보다는 (㉢)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밤길을 걸어가다가 (㉣)을 바라볼 때보다 (㉠)을 바라볼 때 더 살아 있다는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 (㉢)적이라면 (㉠)은 (㉣)적인 것이 아닐까요? (㉣)이 슬픔이라면 (㉠)은 그 슬픔을 껴안고 일어서는 기쁨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은 매일 변하지만 (㉢)은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 | | | | | |
|---|---|---|----|----|
| | ㉠ | ㉡ | ㉢ | ㉣ |
| ① | 달 | 별 | 논리 | 감성 |
| ② | 별 | 달 | 이성 | 감성 |
| ③ | 별 | 달 | 감성 | 이성 |
| ④ | 달 | 별 | 감성 | 이성 |
| ⑤ | 달 | 별 | 감성 | 논리 |

[정답] ③

[출제영역] 독해 - 비문학 - 빈칸 추론

[해설]

마지막 문장에서 ㉣이 매일 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달이 ㉣으로 적절하며, 변하지 않는 별이 ㉠이 된다. 또한 2문단에서 ㉡과 ㉢, ㉠과 ㉣이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문단에서 별빛이 달빛과 달리 사물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이성, ㉣에

는 감성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20. 다음은 고전소설 <구운몽>의 한 부분이다. 문맥상 밑줄 친 단어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사(大師)의 문하(門下)에 제재(弟子) 수백 인인데, 계행(戒行)이 높고 신통(神通)을 얻은 재(者) 삼십여 인이라. 기중에 ㉠유로 젊은 제자의 이름은 성진(性眞)이니, 얼굴이 백설 같고, 정신이 추수(秋水) 같고, 나이 이십 세에 삼장경문(三藏經文)을 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총명(聰明)과 지혜(知慧), 중중(衆中)에 초출(超出)하니, 대사(大師) 크게 중히 여겨 ㉡상해 전도(傳道)할 그릇으로 기대하더라.

대사 매양 제자로 더불어 큰 법(法)을 강론(講論)할 제, 동정 용왕(洞庭龍王)이 백의노인(白衣老人)이 되어 법석(法席)에 참여하여 경을 듣더니, 대사 일일은 제자더러 이르되,

“동정용군(洞庭龍君)이 여러 번 경을 들었으되 일찍 답례를 못 하였으니, 내 늙고 병들어 산문을 나지 않은 지 십여년이라. 내 몸은 ㉢산문 밖에 가벼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너희 중 뉘 ㉣수부에 들어가 나를 대신하여 용군에게 회사(回謝)할꼬?”

성진이 가기를 청하거늘, 대사(大師) 기뻐하여 허락하니, 성진이 가사(袈裟)를 정제(整齊)히 하고 ㉤육환장을 이끌고 동정으로 향하여 가니라.

- ① ㉠ 유로 - 특별히
- ② ㉡ 상해 - 항상
- ③ ㉢ 산문 - 절간
- ④ ㉣ 수부 - 용궁
- ⑤ ㉤ 육환장 - 여섯 겹의 옷

[정답] ⑤

[출제영역] 어휘 - 고전 산문의 어휘

[해설]

‘육환장(六環杖)’은 승려가 짚는,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를 말한다.

[오답해설]

① 앞의 ‘기중’은 ‘其中’으로 ‘그 가운데. 그 속’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로’는 무리 중 특히 어렸다는 점을 의미한다.

② ‘상해’는 ‘항상, 평소에’를 의미하는 옛말이다.

㉡ 상해 사름드려 널오디 - <번역소학>

③ ‘산문(山門)’은 ‘1) 산의 어귀, 2)『불교』절 또는 절의 바깥문’을 의미한다.

‘절간’은 ‘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④ ‘수부(水府)’는 ‘전설에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신의 궁전’을 의미한다. 문맥상 ‘용궁’으로 해석할 수 있다.